

칸타빌레콘서트 포천공연

22일 포천반월아트홀서 개최

세종문화회관 공연에서 완전 매진을 기록하며 클래식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칸타빌레 콘서트가 22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다.

칸타빌레 콘서트는 과거 천재 음악가들을 다룬 일본의 인기만화 노다메 칸타빌레에 나오는 클래식 명곡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는 참신하고 유쾌한 연주회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휘자 최수열과 피아니스트 이효주, 바이올리니스트 신아라 등 한국 클래식의 내일을 짚어주고 젊은 음악가들이 힘을 합쳐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클래식 콘서트를

선사한다.

만화 노다메 칸타빌레에서 이름을 가져온 S 오케스트라는 국내외 각종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 정상급의 20대 연주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로써 한국 클래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보게 할 것이다.

드보르작 체코 조곡 중 폴카,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C장조 1악장, 사사시테 카르멘 환타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등을 연주한다. 관 람 료 :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 A석 15,000원, 예매문의 : 031)538-2938 ~ 40(www.bwart.net)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세종문화회관 공연에서 완전 매진을 기록하며 클래식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칸타빌레 콘서트가 22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다.(사진은 지휘자 최수열)



오는 18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선보일 어린이 영어 뮤지컬 춘향.

국제화시대 필요한 영어뮤지컬 '춘향'

그 놀랍고도 경이적인 해외공연에서의 감동이 포천까지 이어진다. 영어 뮤지컬 춘향 공연을 위해 포천에 꼬마 배우들이 찾아온다.

18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선보일 어린이 영어 뮤지컬 춘향은 놀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공연으로 대사로만 진행되는 영어 연극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노래와 춤이 있는 영어 뮤지컬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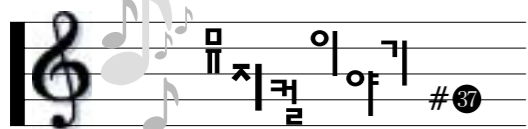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게 스토리를 구성했으며 영상과

12곡의 노래는 국악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또래 배우가 출연하기 때문에 어린이 관객들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도 부여해줄 수 있을 듯하다.

영어에 대한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연으로 1월18일 포천반월아트홀대극장에서 오전11시/오후2시/7시30분 열린다. 관 람 료 : R석 15,000원 / S석 10,000원, 예매문의 : 031)538-2938 ~ 40(www.bwart.net)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1940년대 뮤지컬 개요 할리우드(Hollywood) 뮤지컬의 황금기 II

뮤지컬 영화 제작자 아서 프리드(Arthur Freed, 1894 ~ 1973)가 MGM 영화사의 제작자로 자리잡은 이후 1940년대는 대중적인 뮤지컬뿐만 아니라 실험적이며 예술적인 뮤지컬들도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한편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면서 원작의 내용과 노래가 손상되어 흥행마저도 실패했던 작품들도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관객들은 골라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MGM 영화사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저 영화사들도 경쟁적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1947년 이후부터는 일반화된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할리우드 뮤지컬은 질적인 면에서나 작품 수에서도 하락곡선을 걸기 시작했다.

물론 이후에도 진 켈리(Gene Kelly), 빈센트 미넬리(Vincente Minnelli), 조지 시드니(George Sidney), 스탠리 도넨(Stanley Donen), 찰스 윌터즈(Charles Walters) 등 아서 프리드 휘하의 감독들이 독특한 스타일과 연출로 할리우드 뮤지컬 역사상 최고의 명작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1940년대 할리우드 뮤지컬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쟁 홍보와 참여적 작품들. <양키 두들 댄디(Yankee Doodle Dandy, 워너 브라더스,

1942) <포 미 앤 마이 갈(For Me and My Gal, 1942, MGM) <디스 이즈 디 아미(This is the Army, 1943, 워너 브라더스), <디스 이즈 디 아미(This is the Army)는 전쟁 중에 병사들을 위해서 위문공연단을 결성하고 수많은 전쟁터를 오가며 공연했던 어빙 버린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 버전이다.

둘째, 영화사의 스타시스템 작품들. 주디 갈랜드(Judy Garland), 미키 루니(Mickey Rooney), 빙 크로스비(Bing Crosby),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 진 켈리(Gene Kelly), 프랑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 등이 메이저 영화사에 소속된 40년대 뮤지컬 영화계의 슈퍼스타였다.

MGM 영화사: 주디 갈랜드와 올스타를 등장시킨 <스트라이크 업 더 밴드(Strike Up the Band, 1940) <베이브스 온 브로드웨이(Babes on Broadway, 1941) <미트 미 인 세인트루이스(Meet Me in St. Louis, 1944) <지그펠드 걸(Ziegfeld Girl, 1941) <지그펠드 폴리스(Ziegfeld Follies, 1946), 그리고 주디 갈랜드와 제기에 성공한 프레드 아스테어의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 1948),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 커플의 마지막 작품인 <바클리즈

오브 브로드웨이(The Barkleys Of Broadway, 1949), -파라마운트(Paramount) 영화사: <홀리데이 인(Holiday Inn, 1942): 프레드 아스테어와 빙 크로스비, 캐롤의 대명사 <화이트 크리스마스> 삼입, -컬럼비아(Columbia) 영화사: <유 워 네버 러블리어(You Were Never Lovelier, 1942): 프레드 아스테어와 리타 헤이워드, <커버 걸(Cover Girl, 1944): 진 켈리와 리타 헤이워드.

3. 타계한 유명배우·작곡가들의 전기 영화의 붐. 일대기가 미화되고 사실과 조금 다르게 꾸며진 점도 있지만 인기가 있었다. <양키 두들 댄디(Yankee Doodle Dandy, 1942, Warner Bros.): 조지 엠 코헨(G.M. Cohen),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 1945, Warner Bros.): 조지 거쉬윈(G. Gershwin), <더 졸슨 스토리(The Jolson Story, 1946, Columbia)<졸슨 싱스 어게인(Jolson Sings Again, 1949, Columbia): 알 졸슨(Al Jolson), <나이트 앤 데이(Night and Day, 1946, Warner Bros.): 콜 포터(Cole Porter), <틸 더 클라우즈 롤 바이(Till the Clouds Roll By, 1946, MGM): 제롬 커(Jerome Kern), <워즈 앤 뮤직(Words and Music, 1948, MGM): 리처드 로저스(R. Rodgers)와 로렌즈 하트(Lorenz Hart)

4. 새로운 뮤지컬의 시도: 과거적으로 흑인들만 출연한 뮤지컬 <캐빈 인 더 스카이(Cabin in the Sky, 1943, MGM)와 <스토미 웨더(Stormy Weather, 1943, 20th century-Fox), 그리고 <요란다와 도둑(Yolanda and the Thief, 1945 MGM)은 형식과 스타일면에서 새로웠으며 1930년대 캠퍼스 뮤지컬의 리메이크인 <굿 뉴스(Good News, 1947, MGM)도 새로운 배우들과 안무 등으로 흥행에도 성공을 거두었다. 훨씬 더 과격적이며 새로웠던 뮤지컬은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eigh, 1945, MGM)인데 뱃사람을 등장시켜 성공을 거둔 전형적인 진 켈리 스타일의 뮤지컬로 4년 후 <온 더 타운(On the Town, 1949, MGM)으로 완성되었다. 우리에겐 가수로 더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와 함께 만든 이 작품은 최초로 만화와 뮤지컬이 결합했으며 인기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Tom and Jerry)의 제리가 등장해서 진 켈리와 함께 춤을 춘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런 축제는 '세대공감 겨울체험'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눈 미로를 통과하며 토끼를 물 수 있는 눈썰매 토끼몰이, 병풍절벽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눈썰매 타기, 얼음판 위에서 앉아서 타는 전통얼음썰매 등 겨울철 시골에서 즐기던 놀이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또 모닥불을 피운 방갈로 안에 웅기종기 모여 감자와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팽이치기, 나무꾼총과 딱총 만들기, 송어얼음낚시 등 다양한 놀이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추억의 도시락, 잔치국수, 두부김치 등 먹거리 마당과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할인 판매 행사도 함께 열린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23)

옥병서원(玉屏書院)과 배향인물(配享人物)

「영평광경」의 하나인 「창옥병」 바로 위에 옥병동에 세워진 서원이다. 「사암 박순(思庵 朴淳)」의 사위인 「이택(李擇)」의 택지에 사위가 장인 박순에게 자신의 집을 내 드려 살게된 것이 옥병서원을 세우게 된 동기가 되었다. 효종9년(1658년) 박순의 위패를 모시고 숙종4년(1680년)박순의 영정을 봉안 숙종24년(1698년) 이의건(李義健)과 김수항(金壽恒)을 추가 배향하고 숙종39년(1713년) 「옥병(玉屏)」이란 사액을 받았다. 고종8년 대원군 서원 철폐시 훼손되었으며 위패는 매안(埋安)하고 「이덕수」가 영정을 궤에 담아 보관 하였다. 고종29년(1892년) 포천유림의 공의로 서원터에 영당(影堂)을 세워 영정을 다시 봉안(奉安)하고 향사를

부활하였는데 이때 「김성대(金聲大)」 「이화보(李和甫)」를 추가 배향하고 1926년 「윤봉양(尹鳳陽)」을 추가 봉안 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영당마저 잿더미가 되었으나 1978년 복원되어 1987년에는 모두 복원되었다. 배향인물인 「사암(思庵)」은 영평에 은거(隱居)하는 동안 창옥병의 경승지(景勝地)마다 이름을 붙이고 당대의 명필 「한석봉」의 필체로 갑자에 시를 지어 의미를 피새긴 인물이다.

「박순(朴淳:1523년 ~ 1589년)」은 명종5년(1553년) 정시문과에 급제 1579년 영의정에 이르기 까지 강력한 선비였는데 「문충(文忠)」의 시호를 받았으며 1589년 7월 20일 세상을 떠났는데 67세였다. 「윤곡」 「성흔」과 세 마을 하나나

할 정도로 교분(交分)이 두터웠다. 다니 그 인물됨을 알 수 있다. 창옥병에 머물던 1586년 8월 이후의 은거지는 「배견와(拜殿齋)」였다. 「이의건(李義健:1533년 ~ 1621년)」은 명종19년(1564년) 사마시(科擧)로 1589년 배향되었다. 「백사」의 추천으로 공조정랑에 이르렀다. 공은 「박순,대감의 총애를 받고 「이이」 「성흔」 「정철」 「윤근수」 등과 교분이 두텁고 「이항복」 「신흥」 등과 교류(交流)하여 「박순」과 함께 배향되었는데 어려운 사람과 교분이 두텁고 「이항복」은 「은어」를 구해드리지 못해 못드시고 별세하시자 평생 「은어」를 먹지 않은 효자였다. 「황희희」의 필법과 당시에 능하였다 한다. 세종의 5왕자 광평대군의 5대 손으로 광해13년(1621년 89세)

별세 했다. 「김수항(金壽恒):1629년 ~ 1689년」은 인조24년(1646년) 진사시 장원 효종2년(1651년) 알성문과에 급제(장원) 성균관 전적을 필두로 1680년 영의정(1687년 영돈령 부사로 체임) 8년간 진도에서 사사되었으나 1694년 신원 되고 고종23년에는 현종 묘정에 향배되는 영관을 입었다. 선비의 길을 지킨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로 김수항 역시 홀로 옳은 것을 지킨 선비의 도를 지킨 첫째가는 천재, 절의(天才, 節義)의 선비였다. 「김성대(金聲大)」는 72세의 재비몰의 효자였으며 「김수항」과는 외척간이다. 「이화보(李和甫)」는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泉門高弟, 五學正派(천문고제, 오학정파)」라고 후학들이 칭송할만치 천재였는데 7세에 「효경」을 읽었으며 박순대감의 의손인 「이택(李擇)」의 6대손으로 「선비의 본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다. 윤봉양(尹鳳陽:1695년 ~ 1762년)은 「권상하」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韓國의 선비정신 · 88

기생의 원한을 풀어준 천추사

조광원(曹光遠, 1492 ~ 1573)의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조광원이 중국 태자(太子)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한 천추사(千秋使)의 사명을 띠고 연경(燕京)으로 가는 도중에 평안도의 한 큰 주(州)에서 자게 되었는데, 전도(前導)가 별사(別舍)로 인도하였다. 조광원이 안내하는 관리들에게 따져 물으니, 그 관리가 아뢰었다.

“객관(客館)에 요귀(妖鬼)가 있어 사신이 누차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이 객관을 폐쇄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왕명을 받든 사신의 체통에 마땅히 객관에서 자야 하는데, 어찌 요괴로 인해 객관을 폐쇄하였는가.”

조광원이 서둘러 명하여 객관을 수리 청소하고 숙소를 옮기도록 하였다. 그 고을의 수령이 나와 뵈고 객관에서 자는 것을 간절히 말렸으나, 조광원은 끝내 듣지 않고 그 객관에 들어가 자기로 했다. 밤에 촛불을 밝혀 놓고 잠자리에 들어 자는 척하니, 담당 방의 기생 및 대령하는 하인들이 “요귀가 틀이 닳쳐 사신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며 모두 달아나 피해 버렸다.

밤이 이슬해지자, 갑자기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서 잠발을 걷어올리고 촛불이 깜박 깜박거리며 거의 꺼지게 되었다. 조광원이 언뜻 깨닫고 일어나 앉으니, 들보 사이 판자에서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판자를 걷어내는 상황과도 같았다.

얼마 뒤에 사람의 사지(四肢)가 차례로 내려오는데, 가슴과 배가 머리와 얼굴에 이어져 있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달아 내려와 서로 이어 붙여 한 여인의 몸이 되었다. 그 여인은 살갗이 눈처럼 희고 피가 묻은 흔적이 남지하였다. 그 여인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알몸이었는데 온 몸이 비단처럼 알팍하게 붙어 있었다. 그 여인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며 잠깐 나왔다가 다시 물러나곤 하였다.

조광원이 정색을 하고 호통을 쳤다.

“너는 어떠한 요귀냐? 듣건대, 일찍이 왕명을 받든 사신을 여러 차례 해쳤다 하니, 그 죄가 이미 크다. 그런데 또 감히 내 앞에서 담뿍한 이와 같은 말인가. 만일 호소할 일이 있으면 그만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중형으로 다스리리라.”

요귀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침이 하늘처럼 끝없는 흑흑한 원통함이 있어 호소하려고 하면 사신이 곧 지레 서거(逝去)하였사옵지, 침은 실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하늘의 은택을 입어 오늘을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원통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침은 본주의 기생 아무입니다. 아무 해서 아무 날에 아무 사신을 이 방에서 피시켰습니다. 밤이 깊은 뒤에 소피(小讒)로 인해 바깥 섬

들로 나갔더니, 관노(官奴) 아무가 기둥 아래에 누워 있다가 마침 달빛 아래에서 침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와서 겁탈하려 하므로 침이 죽음으로써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관노 아무는 본래 함이 세기로 유명했는데, 옷을 찢어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안고서 동산의 큰 돌 옆으로 가서, 손으로 그 돌을 들고 침을 그 돌 밑에 넣고 눌러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사지가 가루처럼 부서져서 이러한 꼴이 되었으니 어찌 천하의 지극한 원통이 아니겠습니까?”

조광원이 다 듣고 나서 곧 명령을 내렸다.

“마땅히 처벌함이 있을 터이니, 속히 물러가라.”

그 여인은 다시 울며 사체하고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조광원이 시험삼아 모시는 하인을 불러보았더니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마침내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이 되어 본주(本州)에 들어가서 기안(稟案)을 이룸마다 접열(黜陟)하고, 아무 관노의 이름을 가리키며 즉시 포박하여 대령하게 하였다. 이어서 많은 사람을 시켜 간밤에 여인이 말한 대로 그 돌을 들어 살펴보니, 그 여인의 살갗이 지금까지 조금도 썩지 않았다.

기생의 시체를 뜰에 내놓고 그 관노를 신문하니,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모두 승복하였다. 곧장 곤장을 쳐서 죽이고 그 주(州)의 수령으로 하여금 관을 찢고 열(驗)을 하여 후하게 장례를 치르게 하였는데, 그 뒤로 드디어 요귀가 없어졌다.

창양군(昌陽君)에 승봉(襲封)되고,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제4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개막

27일까지 이동면 백운계곡에서 열려

제4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4일 이동면 백운계곡에서 막을 올렸다.

5일 개막식에는 삼재인 포천시부시장을 비롯해 이강진 시의회의장, 고조흥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해 축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축제는 '세대공감 겨울체험'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눈 미로를 통과하며 토끼를 물 수 있는 눈썰매 토끼몰이, 병풍절벽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눈썰매 타기, 얼음판 위에서 앉아서 타는 전통얼음썰매 등 겨울철 시골에서 즐기던 놀이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또 모닥불을 피운 방갈로 안에 웅기종기 모여 감자와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팽이치기, 나무꾼총과 딱총 만들기, 송어얼음낚시 등 다양한 놀이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추억의 도시락, 잔치국수, 두부김치 등 먹거리 마당과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할인 판매 행사도 함께 열린다.

또한 물과 바람과 나무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모양의 얼음기둥 작품을 올렸다.

5일 개막식에는 삼재인 포천시부시장을 비롯해 이강진 시의회의장, 고조흥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해 축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축제는 '세대공감 겨울체험'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눈 미로를 통과하며 토끼를 물 수 있는 눈썰매 토끼몰이, 병풍절벽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눈썰매 타기, 얼음판 위에서 앉아서 타는 전통얼음썰매 등 겨울철 시골에서 즐기던 놀이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또 모닥불을 피운 방갈로 안에 웅기종기 모여 감자와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팽이치기, 나무꾼총과 딱총 만들기, 송어얼음낚시 등 다양한 놀이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추억의 도시락, 잔치국수, 두부김치 등 먹거리 마당과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할인 판매 행사도 함께 열린다.

시 관계자는 “동장군 축제는 가족 모두가 겨울전통놀이 문화를 즐기며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폐막일인 27일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아 주길 당부했다. 문의 031)635-7242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제4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4일 이동면 백운계곡에서 막을 올렸다.(사진은 물과 바람과 나무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모양의 얼음기둥 작품)

초대 漢詩

秋盡江山滿霜葉 (추진강산만상엽)

霜楓妖艷石泉清 (상풍요염석천청) 秋盡前庭染葉生 (추진전정염엽생) 시리 맑은 단풍은 요염하고 석천은 맑은데 가을이 되니 앞뜰에는 물든 잎이 생기네

秋水寒潭魚泳躍 (추수한담어영약) 橫空皓月雁飛聲 (횡공호월안비성) 연못 찬물속에는 고기가 수영치며 뛰놀고 밝은 달 하늘에는 기러기가 소리내며 날아가구나

三農已熟豐饒世 (삼농기숙풍요세) 百果臨紅喜色張 (백과임홍희색장) 삼농이 이미 익으니 세상이 풍요롭고 백과가 붉게 물드니 백성들도 희색이 도는구나

萬里江山詩興好 (만리강산시흥호) 乾坤美麗富村成 (건천미려부촌성) 만리강산에는 시흥이 좋고 하늘과 땅 사이에 아름답고 고은 부촌을 이루었도다.



崔宗圭 포천명유회 회장